



불가리아

2006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개선 필요

2005년 10월에 이어 2006년 1월 불가리아를 방문한 IMF 실사단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거시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4년의 5.8%에서 2005년에는 11.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정부의 2005년도 경상수지 적자억제 목표치인 7.6%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다른 발칸지역 국가들도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가리아는 특히 주변국들과 비교해도 경상수지 적자규모 및 확대속도 측면에서 향후 거시경제 안정이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불가리아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성과, IMF와 합의한 2006년 경제정책 프로그램 및 금년의 대외거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에도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수지 적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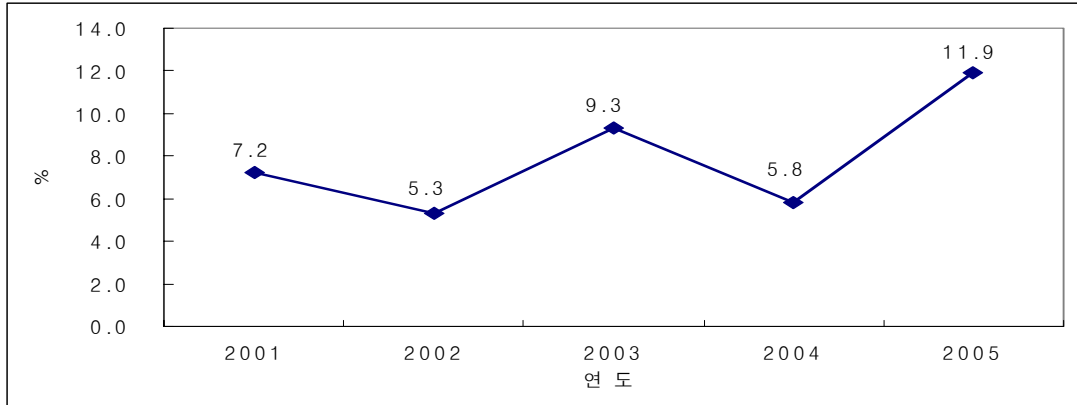
2005년 중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은 상품수지 적자의 확대에 기인한다. 2005년 상품수지 적자는 54억 달러에 달해 사상최대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5년 중 상품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확대된 배경은 수출경쟁력 약화라기보다는 주로 상품수입의 상대적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첫째, 2005년에는 민간투자가 크게 증가된 반면 민간저축은 감소하였다. 또한, 민간 부문에 대한 상업은행들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민간소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EU 가입과 관련하여 불가리아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수확대는 상품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2005년 중 상품수입증가율(26.7%)은 상품수출증가율(19.4%)을 상회하였다. 특히 투자활동이

〈그림 1〉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추이

단위: %



자료: IMF, *Statement by the IMF Staff Representative*, 2006. 4. 3.

활발해지면서 2005년 상품수입에서 투자용 원부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동년 4/4분기 원부자재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1.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수송기계의 수입이 두드러졌다.

둘째, 2005년 중 상품수입이 크게 증가한 또 다른 요인은 수입가격의 상승이다.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가격상승이 지속되면서 수입 에너지가격이 상승하였다. 특히 원자재 수입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제조업, 건설업 부문의 호조로 전년대비 14.8%가 증가하여 2005년 총수입의 1/3을 차지하였다.

셋째, 2005년 중 원자재는 가격상승 뿐 아니라 전년도보다 수입물량도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철금속, 비철금속, 목재 등의 수입이 활발하였고, 2005년 하반기 홍수피해로 식료품 관련 원자재의 수입도 증가하였다. 또한, 2004년 말 다자간섬유협정(MFA)의 종료 이후 값싼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에 대한 EU 쿼터제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던 점도 섬유 원자재 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2005년 3/4분기에는 홍수 피해로 농업 생산이 6.4% 감소하는 등 불가리아의 주요 외화소득원의 하나인 농축산물 및 식료품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 또한, 섬유제품에 대한 쿼터제 폐지로 불가리아의 섬유제품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철강 제조기업의 생산시설 확장으로 일부 공장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철강제품의 수출도 감소하였다.

IMF와 금년도 1월 경제정책 프로그램 운영 합의

2005년 기준으로 상품수지를 제외한 경상수지의 다른 항목들을 살펴보면, 서비스수지, 경상이전수지, 자본수지 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홍수로 인해 관광산업이 다소 위축되면서 서비스수지는 2004년에 이어 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유지하였으며, 자본수지도 전년 수준인 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또한, 민간부문의 경상이전 유입이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경상이전수지는 1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2005년 중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일부에서는 외부충격에 대한 불가리아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2006년 1월 IMF와 불가리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규모의 축소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세 유지에도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 프로그램 운영에 합의하였다. 재정수지 관리, 여신 및 채무급증 억제, 대외거래 등의 부문에 걸친 경제정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리아 정부는 2006년 재정수지 흑자 목표치를 GDP의 3%로 상향조정하였다. 긴축재정정책의 시행으로 2004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견실한 경제성장세에 따른 세수기반 확대로 재정수지 흑자는 GDP의 2.4%를 기록하였다. 2006년 1월부터 실시한 간접

세 인상 조치로 인한 세수증가 등 2006년도 정부의 신중한 재정운영에 힘입어 연간 재정수지 흑자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¹⁾

둘째, 중앙은행은 여신증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 3월과 11월에 이어 2006년 초에도 상업은행들의 여신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내수증가 억제로 이어져 2005년 6.7%를 기록한 민간소비 증가율이 2006년에는 4%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6년 GDP 대비 민간 국내저축은 전년 대비 2% 포인트 상승한 4.6%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6년에는 EU를 비롯한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경제상황 호전이 예상되면서 수출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요 국내외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e	2006 ^f
경 제 성 장 률	4.1	4.9	4.5	5.6	5.4	4.3
재 정 수 지 / G D P	-0.9	-0.7	0.0	1.7	2.4	3.0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7.4	5.8	2.3	6.1	5.0	6.1
경 상 수 지	-1,000	-800	-1,900	-1,400	-3,100	-3,100
경 상 수 지 / G D P	-7.2	-5.3	-9.3	-5.8	-11.9	-10.6
상 품 수 지	-1,600	-1,600	-2,600	-3,700	-5,400	-5,400
수 출	5,100	5,700	7,500	9,800	11,700	13,700
수 입	6,700	7,300	10,100	13,500	17,100	19,100
외 환 보 유 액	3,291	4,407	6,291	8,776	8,041	-
총 외 채 잔 액	10,500	11,500	13,200	16,100	15,600	17,0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77.2	73.5	66.1	66.4	59.8	59.0

자료: EIU, ViewsWire, 2006. 3.

1) IMF는 2006년 중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축소될 경우,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목표치를 3%보다 낮출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음.

특히 2005년 EU가 일시적으로 폐지한 섬유 쿼터제가 2006년 중 다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가리아 섬유제품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제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재정수지 흑자 및 민영화 수익 등을 바탕으로 2006년 12월에 IMF에 대한 1억 8,300만 달러의 차관을 조기상환 하는 등 공적자산 및 부채의 관리를 통해 공적채무를 감소시

키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부문 이외에도 2006년에는 관광산업 호조로 서비스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EU의 경상 지원자금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5년보다 축소된 10.6%를 기록하며 향후에도 축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은 경】